



[낙농경영] ‘면실박, 젖소의 단백질 보충에 효과적’ - 美 조지아대 발표

- 대두 대신 면실박 대체 급여시 가성비 좋아



목화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면실박(목화씨 깻묵)이 젖소의 단백질 보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조지아대(UGA) 연구진이 새로운 단백질 보충제 탐색을 위해 비유 초기 젖소에게 대두 또는 열처리된 대두를 급여한 후 이를 면실박으로 대체한 결과 원유의 성분은 물론 생산량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면실박은 구하기가 쉽고 대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사료가격 상승시 대체 사료로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젖소는 면실박의 단백질을 통해 인간에게 해로운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실박 급여를 통해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면화 재배자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실시될 계획이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9월 13일자 >

[시장동향] 호주 대체식품업체, 식물성 유단백질 개발에 정부 지원받아

- 총 138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로 정밀 발효 기술을 활용한 유단백질 개발 박차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호주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단백질 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식물성 유단백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식물성 대체단백질 업체인 All G Foods가 정부기관인 청정에너지 금융공사(CEFC)로부터 370만 달러(약 43억원)를 지원 받아 총 1,180만 달러(약 138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업체는 대체육을 활용한 햄버거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 투자를 통해 젖소나 다른 착유동물 없이 정밀 발효 기술을 활용한 유단백질을 개발해 우유의 성분은 물론 풍미와 영양소를 복제한 비(非) 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9월 9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